

한국문학과 도시성*

이양숙**

1. 도시(인)문학과 도시성의 탐구: 공간적, 문화적, 감각적 전환의 의미
2. 연구방법의 검토
3. 도시문학에 나타난 감각의 재구성
4. 도시문학 연구의 방향

<국문요약>

도시화의 진전으로 현대인의 도시적 삶은 인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유의 대상이 되었다. 도시문학은 도시생활의 전형적 특징인 도시성의 문학적 양상을 탐구한다. 문학의 영역에서 도시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첫째 도시성을 도시적인 현상 일반 혹은 범박한 의미의 근대성으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이 경향은 문학에 나타난 도시체험과 이 체험이 주는 충격의 문학적 형상화에 주목한다. 둘째 도시성을 자본주의가 공간적으로 구체화된 형태로서의 도시의 성격이라는 보다 한정된 의미로 사용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도시를 탐구한다는 것은 곧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기제를 탐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도시문학은 근대적 주체와 문화적, 자본주의적 도시성 사이의 갈등과 충돌 사이에서 탄생하는 미적 모더니티에 주목

* 이 논문(저서)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7-361-AM0027).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조교수.

한다. 도시인문학은 인문학의 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간적, 언어적, 문화적, 감각적 전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의 전환 중 문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적 전환이다. 문학은 상상력을 통해 지배적인 감각만이 아닌 다양한 감각을 통합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감수성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후각적, 청각적 전환을 살피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한편 도시인문학의 한 분야인 도시문학연구가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는 문학적 모더니티 연구, 문화론적 문학연구, 서울문학연구, 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 로컬리티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인문학의 위기극복이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탈중심적, 해체적 관계에 주목하는 이들 연구는 인문학분야에서 문화적, 공간적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만큼 도시문학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대체’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전환이 외연의 확대와 문제의식의 심화로 수용될 때 자칫 기존연구와 상반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제간연구와 비교문학적 문제의식은 초국가적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와 획일화를 이해하고 탈근대적 도시문화를 건설하는 데 유용한 사유의 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핵심어: 도시성, 도시인문학, 도시문학, 공간적 전환, 문화적 전환, 감각적 전환

1. 도시(인)문학과 도시성의 탐구 : 공간적, 문화적, 감각적 전환의 의미

최근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화의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조건과 함께 도시에서의 삶이 한층 비인간적으로 변해간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획일성, 진정한 인간적 관계

를 단절시키는 도시공간의 분리와 차별 등은 현대 대도시를 특징짓는 인간학적 위기의 징후들이다. 전통적 도시공간의 관념에서 본다면 도시의 ‘외부’는 이동과 부유를 특징으로 하는 ‘비도시’였지만 끝없는 팽창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린 현대도시에서 외부의 이질성과 내부의 안정성을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게 되었다. 이제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오직 도시 경험, 즉 도시를 내적으로 구성하는 한계들과 그 장애물들뿐이다.¹⁾ 그러므로 도시연구에 인문적 비전을 투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해졌다.

도시인문학으로서의 도시문학 연구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재선에 따르면 도시문학이란 도시생활의 전형적 특징인 ‘도시성(urbanism)’에 대한 비전과 미학적 기법이 통합되어 있는, 도시의 경험적 특질이 표현되는 문학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시문학이 되려면 도시에서의 보편적 삶의 양식이 묘사되어야 함은 물론 도시의 특수한 역할이나 의의가 인물의 성격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한편 상징구조나 서사기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²⁾ 한국근대문학사에서 도시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역동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2,3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수도 경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풍경을 근대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도시적 일상성을 작품의 중심에 두는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박태원, 이상, 이효석, 유진오, 김남천, 채만식, 염상섭 등의 소설가와 임화, 김기림, 박팔양, 오장환, 김광균 등의 시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혹은 중간파의 문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도시문학으로 본다는 것, 이들 작품에 나타난 ‘도시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표현의 차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방법의 재검토와 새로운 문제의식의 전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한국근대문학 비평과 연구는 오랫동안 역사성(시간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둘러싼 그간의 사유는 전통과 이식의 문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문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문제 등

1) 김성도, 『도시인간학』, 안그라픽스, 2014, 97-100쪽.

2)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274쪽.

이었고 이는 모두 서구와 일본에 비해 지연된 근대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는가 하는 시간적 강박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간’ 중심의 사유는 현상 속에 숨은 변화의 계기에 주목하고 그 계기의 발전방향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근대문학연구는 종종 공간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그 안에 잠재한 시간성에 주목했을 뿐 그 공간 자체의 기능과 의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³⁾ 이에 대한 비판은 1990년대 이후 일련의 탈-근대적 문제의식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기된 소위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은 공간과 장소를 구성하고 재현하는 언어와 담론, 문화적인 상징과 상상이 담당하는 기능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지하는 것으로서⁴⁾ 문학연구에서는 이성, 진보, 계몽, 민족, 국가, 계급 등 거대담론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다양한 주체의 언술행위와 그것을 통해 새롭게 밝혀지는 근대성(탈-근대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거대담론이 일직선적 시간성에 기초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왜 탈-근대적 문제의식이 ‘공간’적 전환에서 시작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많은 학문 분야에서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 이루어진 이유로 마이클 그레이는 역사주의, 발전주의라는 전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간의 의미가 활동을 담는 그릇(container)에서 사회적으로 생산된 다중성의 집합으로 설명되는 근거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⁵⁾ 그러므로 위에 거론한 작가들을 도시문학의 생산자로 본다는 것 그리고 이들 문학에 나타난 도시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학을 바라보는 실천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에서의 ‘도시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이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도시성을 ‘도시적인 현상’ 일반 혹은 범박한 의미의 ‘근대성’으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다소 거칠게 표현해서 이 경향은 문학에 나타난 도시체험과 이 체험이 주는 충격의 문학적 형상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⁶⁾ 이 입장은 주로 대도시의 정

3) 김명인, 『근대도시의 바깥을 사유한다는 것』,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09, 212쪽.

4) 이기형, 『문화연구와 공간』, 『언론과 사회』 16권 3호, 2008, 15쪽.

5) 마이클 그레이, 나이젤 스프리트 편, 최병두 역, 『공간적 사유』, 예코리브르, 2013, 14-15면.

신적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인의 삶을 조명한 게오르그 짐멜이나 산책자 개념으로 파리를 분석한 발터 벤야민의 문화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백화점, 카페, 다방, 쇼윈도, 쇼프걸(shop girl), 마네킹, 전기, 조명, 에스컬레이터 등 근대적 풍물은 물론 철도, 전차, 전화, 라디오, 영화 등 새로운 운송수단과 매체가 주는 속도감이나 이에 따른 일상의 변화를 작품에 담고 도시문명의 매혹과 절망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근대적 주인공(대표적으로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은 이와 같은 도시성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로 연구되었다.

둘째 도시성을 “자본주의가 공간적으로 구체화된 형상으로서의 도시의 성격”이라는 보다 한정된 의미로 사용하는 입장으로 여기서 도시를 탐구한다는 것은 곧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기체를 탐구하는 일이다.⁷⁾ 이런 입장을 지닌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앙리 르페브르를 들 수 있다. 그는 도시적이라는 개념(the urban)을 도시(city)라는 물리적 대상과 구분하는데 이때 도시(the urban)는 공간, 일상생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재생산이라는 상호 관련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도시는 생산관계가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 내에서 재생산되는 전반적인 공간적 맥락이 된다.⁸⁾ 이 경우 도시문학은 도시라는 공간적 매개를 통해 자본주의적 근대가 인간들에게 안팎으로 관철되는 양상을 형상화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도시성과 근대적 주체 사이의 갈등과 충돌 사이에서 탄생하는 미적 모더니티를 탐구하는 것이 도시문학

6) 예를 들어 전차(기차) 안에서 바깥풍경을 바라볼 때 속도에 비례해서 풍경이 교차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풍경은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 즉 풍경은 더 이상 여행객의 내면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 남게 된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지속이 무너지면서 대도시의 풍경은 마치 이질적인 장면의 조립으로 구성되는 영화처럼 남는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자극이 주어지지만 대상과의 내밀한 시선의 교환은 일어날 수 없다. 김길용, 『시간과 멜랑콜리』, 『독일언어문학』 36, 2007, 한국독일언어학회, 249쪽.

7) 김명인, 『근대소설과 도시성의 문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6집, 민족문학사학회, 2000, 191-205쪽.

8)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일상적 공간이용을 통하여 재생산된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터 손더스, 김찬호 외 역, 『도시와 사회이론』, 한울, 1998, 171쪽. 손더스는 첫 번째 입장은 ‘문화형태로서의 도시’(문화적 연구방법)로, 두 번째 입장은 ‘이데올로기로서의 도시’(마르크스주의적 연구방법)로 각각 도시를 분석하고 있다고 본다. 위의 책 참조.

의 핵심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두 경향이 각각 기존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적 경향의 작품연구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입장 모두 각각 특정 경향의 작품(모더니즘/리얼리즘계열)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두 입장 모두 탈-근대적 문제의식을 소유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모더니즘에서 ‘모더니티’ 연구로, 기존 리얼리즘의 시간의식에서 일상성과 공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각각 문제의식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인문학의 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간적 전환’은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나아가 감각적 전환(sensual turn)에 이어서, 혹은 그것들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예컨대 역사학의 영역에서 문화적 전환으로 일컬을 수 있는 신문화사는 ‘문화’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려 했다는 점, 역사서술의 최종목적은 ‘통합적인 구조의 발견’에 두기보다는 인간 삶의 경험 속에서 드러난 ‘복수의 문화들’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사서술과 구별된다. 또한 역사학에서 텍스트분석과 언어분석을 사용하는 지성사 연구는 언어적 전환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권력 배분’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데 하층계급, 소수민족집단,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요구들이 그것이다. 즉 전통 역사의 보편주의적 거대담론 아래서는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었던 다양한 목소리들(hetero-glossia)이 신문화사 연구의 분산적 다양성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⁹⁾ 감각적 전환 역시 근대의 정신우월주의, 금욕주의 및 이성 중심주의에 의해 억압되어온 인간의 감각을 새롭게 조명한다. 이때 감각은 신체와 정신, 자신과 타자, 인간과 사물 그리고 모든 형태의 주체와 객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인식되는데 현대사회의 주된 감각인 ‘시각’은 물론, 후각, 미각, 촉각이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부각된다.¹⁰⁾ 특히 감각적 전환은 그 속성 상 문학, 예술의 영역에서

9) 임상우, 『역사학에서의 문화적 전환』, 『서강인문논총』14,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2001, 218-222쪽.

10) 김문조, 『감각과 사회: 시각 및 촉각을 중심으로』, 『영상문화』18, 한국영상문화학회, 2011.

가장 구체적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도시문학에 나타난 감각적 전환의 의미와 그 양상을 도시문학의 사례로 간략하게나마 살피고자 한다. 본고는 도시문학연구가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연구의 방법을 점검한 후(2장) 최근 도시문학연구에 나타난 감각적 전환을 소개하고(3장) 향후 도시문학연구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으로(4장)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의 검토

도시문학연구가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선행 연구의 경향(방법)으로는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문학적 모더니티 연구, 둘째 풍속사-문화론적 연구, 셋째 서울(한양, 경성)문학 연구, 넷째 문화지리학과 로컬리티 연구 등이다.

도시미학으로 간주되는 모더니즘은 전근대적 시골과 근대화되는 도시 사이의 긴장관계 및 제국주의적 근대에 대한 매혹과 거부의 갈등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한국문학에서 모더니즘 연구는 1930년대 본격화된 도시적 감각의 출현이 어떻게 한국문학의 미적 근대성을 구성했는지 분석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도시는 모더니즘뿐만이 아니라 리얼리즘과 낭만주의에서도 중요한 주제였다. 리얼리즘에서 도시는 계급갈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고, 낭만주의에서 도시는 근원적 세계를 상실한 현실의 공간으로 형상화된다.¹¹⁾ 그러므로 모더니즘이 아니라 모더니즘을 포함한 문학적 ‘모더니티’에 대한 연구를 도시문학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적 경험은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자 동시에 새로운 미적 경험이고 새로운 미적 주체를 형성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는 도시적 삶의 형성, 도시적 인간의 탄생이라는 근본적인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 때 도시인은 도시적 경험과 감각을 통해 구성된 새로운 미적 주체를 의미한다.¹²⁾ 예컨대 근대도시의 ‘산책자’는 군중에 대한 관찰자로서

11) 전봉관은 이런 점에서 모더니즘이 30년대 한국 도시적 서정시의 극히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봉관, 『1930년대 한국 도시적 서정시 연구』, 서울대박사, 2003, 7쪽.

대중의 물결 속에 들어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묻는 자인 것이다.¹³⁾ 또한 문학텍스트에서 도시인은 도시화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다. 도시인은 도시의 삶에 머물면서도 도시 너머의 또 다른 삶을 미적으로 기획하는 능동적 존재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도시문학에 나타난 미적 기획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도시적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도시경험의 특성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는 문학적 모더니티연구와 공통성을 갖지만 대상과 연구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풍속사-문화론적 연구’(권보드래) 혹은 ‘문학적 문화론 연구’(천정환)를 들 수 있다. 풍속사-문화론적 연구는 기생, 여학생, 스포츠, 패션, 다방, 금광, 백화점 등과 문학의 관련상을 연구해 온 흐름으로 이 경향은 “일상사의 코드로 근대성 연구의 새로운 측면을 규명”한다거나, 문학텍스트보다 그 텍스트 생산을 가능하게 한 물적 조건인 제도에 대한 천착, 작가나 작품, 유파 대신 텍스트 사이를 넘나들며 유행과 취향의 풍속사를 재구성하는 연구의 전략을 제시한다.¹⁴⁾ 또한 그것은 “문학을 문화적 구성체 속에 놓고 봄으로써 문화, 이데올로기, 담론, 인접예술, 표상 등의 영역으로 문학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근대문학의 장르체계에 포섭되지 못한 언어의 장과 주변장르의 영역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확장함으로써 기존 관행과 제도가 그어놓은 경계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문학연구와 글쓰기의 새로운 대상과 지평을 찾자 한 결과물”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¹⁵⁾ 문학영역에서 ‘문화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경향은 역사학, 사회학의 문화적 전환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많은 성과를 산출하였다.

서울(한양, 경성) 문학 연구는 고전문학분야에서는 조선 후기 도시문화가

12) 이광호, 『도시인의 탄생』, 서강대출판부, 2010, 14쪽.

13) 신범순, 『30년대 모더니즘에서 산책자의 꿈과 재현의 붕괴』, 『한국현대시사의 매듭과 혼』, 민지사, 1992, 161쪽.

14) 권보드래, 『‘풍속사’와 문학의 질서』,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5) 천정환, 『새로운 문학연구와 글쓰기를 위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참조. 이에 대해 차혜영은 작가와 작품이라는 대상영역, 역사 혹은 근대에 대한 인과론적, 목적론적 발전사관, 작품중심의 미학주의와 작가중심의 도덕주의라는 지금까지의 근대성을 둘러싼 거주장스러운 부속물을 벗어던지면서, 역사학, 사회학, 국문학이라는 경계를 허물면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차혜영, 『자료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두 가지 방식』,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지닌 소비와 유흥의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 서울의 시정세태를 도시화의 특면에서 살핀 연구, 옥망과 환멸의 도시공간으로서의 서울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으며¹⁶⁾ 현대문학에서는 소비도시로서의 경성체험, 도시이미지 연구, 식민지도시로서의 경성에 대한 연구¹⁷⁾, 20세기 초부터 21세기 초까지의 작품에서 서울의 서울다움을 담고 있는 대표적 예를 선별하여 그 계보를 설정하는 연구¹⁸⁾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거론할 수 있다. 서울(한양, 경성)문학에 대한 연구는 한국 도시화의 기원과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동하의 문제제기처럼 서울문학은 더 심세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¹⁹⁾ 도시 일반의 특성을 보이는 ‘도시문학’에서 특정 도시인 ‘서울문학’으로 문제의식이 구체화될 때 근대 한국사회의 축도라 할 서울(한양, 경성)문학은 한국도시문학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지리학은 지리적 관점의 문학연구로 문학작품 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정보, 장소에 대한 경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 최근 지역문인에 대한 연구, 문학관 건립, 문학기행 등의 도구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²⁰⁾ 문학지리학을 활용한 문학연구는 동시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도시를 구성하는 배치와 구획의 원리, 이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성된 공간이 다시 어떻게 장소성을 획득하는가를 주요 관심으로 연구한다.²¹⁾²²⁾ 로컬리티 연구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도를 벗어나 각각의 공

16) 정인숙, 「국문학 분야 도시 연구의 동향과 전망」, 『도시인문학연구』 3권 1호, 서울시립대도시인문학연구소, 2011, 294-296쪽.

17) 이양숙,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1941년의 경성과 지식인」, 『현대소설연구』 54, 현대소설학회, 2013.

18) 한형구, 「문자현상, 혹은 문학으로 본 서울 근대 100년의 이미지」, 『서울 20세기 생활, 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원, 2002.

19) 이동하는 이상의 『날개』(1936)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1965)의 경우 약간의 디테일만 수정한다면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가 되어도 무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들은 특정 시대의 서울이 가지고 있었던 ‘서울다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도시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소설연구의 과제」, 『현대소설연구』 52, 현대소설학회, 2013, 33-34쪽.

20) 김진영, 신정엽,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공간 논의에 대한 재고찰」, 『지리교육논집』 54, 서울대지리교육과, 2010, 12쪽.

21) 김춘식, 「식민지 도시 ‘경성’과 ‘모던 서울’의 표상」, 『한국문학연구』 38,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10, 48쪽.

22) 그밖에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문화지리학(new cultural geography)의 경관(landscape)개

간이 지닌 고유성과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탈 근대적 사유를 전개한다. 로컬리티 연구의 특징은 한국문학연구를 양분해 온 개인 혹은 국가(민족) 중심의 서사 사이에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데 있다. 문학에서 로컬리티는 수많은 중심이 구상되고 좌절된 흔적을 더듬는 작업이기도 하다. 예컨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개인은 국가의 정서를 표상하는 존재가 되어 개인의 역사는 소외되지만 로컬리티의 시선으로 본 디아스포라는 “동일한 로컬을 공유하는 에스닉 커뮤니티 간의 공생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²³⁾ 문학 지리학과 로컬리티 연구는 지역문인을 발굴하고 문단사를 정리하는 기초 작업부터 평양, 군산, 인천, 부산, 제천, 목포 등 지역도시의 도시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기도 하다.

위의 네 경향의 연구는 문화적, 공간적 전환을 보여주는 연구로 도시문학연구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연구는 물질적, 위계적, 중심화된 관계가 아니라 담론적, 해체적, 탈중심적 관계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이 연구들이 ‘(인)문학의 위기’ 극복이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탈경계적 사유가 문학이라는 경계, 문학성에 대한 질문 혹은 미적인 것에 대한 탐구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이야기꾼으로서의 사회학자(역사가)’²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적 상징과 상상력이 학문적 글쓰기에서 점차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때 문학적 실천의 경계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성기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지식계의 ‘문화적 전환’이 “리얼리티에 대한 직접적이고 투명한 접근을 가설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

님을 활용한 연구도 주목된다. 신문화지리학자들은 경관을 이미지 혹은 텍스트로 이해하는데 이는 경관이 주체의 시각이나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해석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텍스트로서의 도시’(city as text) 혹은 ‘양피지로서의 도시(city as palimpsest)’ 개념은 최근 도시문학연구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지은, 『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와 경관의 텍스트성』, 『안과 밖』 34, 영미문학연구회, 2013, 130-131쪽.

23) 이상봉,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와 로컬-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70쪽.

24) 최종렬, 『사회학의 문화적 전환』, 살림, 2009.

경제적인 것보다 우위에 놓음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이슈조차 문화적 인공 변식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거나, ‘문화적 전환’을 표방한 연구 성과들이 ‘소박한 반영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등등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²⁵⁾ 도시문학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는 한편 여러 분과 학문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상의 ‘문학’과 ‘문학적 글쓰기’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에 일조하는 문화적 실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문학에 나타난 감각의 재구성

본 장에서는 최근 현대예술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감각적 전환 sensual turn’의 의미와 문학에 나타난 감각의 재구성 양상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감각은 ‘미적 근대성’의 한 측면이며 합리적 이성에 저항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감정은 물론 영감 및 상상력과도 구별된다. 한국 근대문학에 있어서 감각의 사용법은 미적 모더니티를 어떻게 발현하고 실천했는가를 고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역사철학적 근대성’의 원리인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 저항하면서 반응하는 ‘미적 모더니티’의 원리는 무엇보다 문학에 나타나는 감각적 요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특히 문화, 예술, 학문 영역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고 감각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시각 중심적, 서구 중심적, 엘리트적, 가부장적 전통에서 벗어나 현대예술에서 다양한 시선과 감각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구체화된다.²⁷⁾

25) ‘문화적 전환’을 ‘장식적 사회학’이라 비판한 크리스 로젝과 브라이언 터너에 따르면 장식적 사회학의 화려한 부상은 미국대학 연구기금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장기간의 시간과 재원을 요구하는 연구가 어려워짐에 따라 손쉽게 대중문화를 연구하거나 프랑스 이론에 대한 주석과 해제가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로젝과 터너는 ‘장식적 사회학’이 표면상으로는 심히 정치화되어 있지만 지속 가능하며 구체적인 정치 아젠다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비판한다. 김성기, 『우리 시대 ‘문화적 전환’의 안과 밖』, 『역사와 문화』 10, 2005, 126-132쪽.

26) 오형엽, 『미적 근대성, 이미지즘, 감각의 사용법-한국 근대 서정시에서의 감각』, 『파라 Para 21』 6호, 2004, 이수출판사, 38쪽.

도시문학에 나타난 ‘감각’에 대한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연구는 ‘감각의 교체’ 및 ‘감각의 재구성’을 통해 한국문학에 나타난 도시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감각의 재구성이란 오감 중 한 감각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지각을 통합하는 형태에서 그 중심이 되는 감각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중세 유럽에서 감각의 우선순위가 청각-촉각-시각이었다면, 근대에는 사진기술의 등장이나 대도시의 출현과 더불어 그 순위가 시각-청각-촉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²⁸⁾ 근대에 나타난 시각의 독주에 맞서 촉각과 청각의 회복을 꾀하는 방향으로 오감을 재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나카무라 유지로는 새로운 감각의 충격이 더해짐에 따라 감각 전체의 배분비율이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예술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예술가들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충격으로 감각이 마비되기 전에 감각의 배분(재구성)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근대문명은 사물과 자연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시각이 우위에 서서 이들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시각이 독주하게 된 근대문명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알려지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대상을 주체로부터 갈라놓게 되었으며 따라서 보이는 것과 알려지는 것을 물화시키고 지배하게 되었다. 시각의 지배에 맞서 촉각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 혹은 시각을 다른 감각으로 억제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

27) 예컨대 후각을 재생하는 지리적 상상력을 작품에 도입하고 있는 오스왈도 마르시아(Oswaldo Marcia)는 전 세계 10개 주민의 체취를 수집하여 작품으로 제작하였는데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냄새샘플지역에 넣지 않았다. 선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탈취제, 샴푸, 비누, 화장품, 향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모두 비슷한 인공적 냄새만을 풍기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후각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화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다. 김학희, 『현대 미술에서 지리적 상상력의 중요성: 후각을 재생한 예술작품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대한지리학회, 2008, 274-276쪽.

28) 나카무라 유지로는 세잔이 마치 장님이 그린 것처럼 정물화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 원근법(초점시각)에 부합하지 않는 정물화 속 사물들은 마치 장님이 손을 더듬어 사물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을 화폭에 옮긴 것처럼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예술의 경험은 원근법이 줄 수 없는 사물에 대한 생생한 촉각적 경험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나카무라 유지로의 주장은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에 근거한 것이다. 맥루한은 지나친 자극에 의한 감각의 마비나 감각폐쇄에 맞서 종합감각인 촉각으로 오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카무라 유지로, 『공통감각론』, 고동호, 양일모 역, 민음사, 2003, 57쪽.

이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감각의 회복으로 평가된다.²⁹⁾ 마살 맥 루한이 강조하는 ‘촉각성 tactility’ 역시 ‘모든 감각을 깊은 상호작용 속에 참여시키는 공감각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³⁰⁾ 지각에 있어서 시각적 경험만이 아니라 촉각적 경험이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한 메를로 폰티 역시 감각이 객관적인 외부자극과 동시에 일어나는 주체 내부의 운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각은 주체가 감각적 성질들을 내부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일어난다고 보았다.³¹⁾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감각의 전환’이란 단순히 지배적인 한 감각에서 또 다른 감각으로 그 초점을 이동하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감각을 재구성함으로써 공통감각 본래의 작용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문학에서 도시성과 감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시각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³²⁾ 그것은 한국의 도시화가 강한 시각적 충격을 동반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특히 1920-30년대는 도시계획과 환경개선, 군중경험, 영화나 사진 복제에 의한 시각 이미지의 폭증에 의해 ‘감각의 과부하 sensory overload’가 시작되는 시기였다.³³⁾ 소설에서는 1920년대부터 관찰자로서의 주체가 등장하면서 ‘사실적 묘사’가 근대적 창작방법으로 강조되었고 1930년대 경성을 배회하는 산책자(flaneur)의 도시체험 역시 이들이 받은 시각적 충격과 그 의미에 집중되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시에서도 시각경

29) 근대문명은 촉각과 관련된 상태로 시각이 우위에 선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촉각과 분리된 채로 시각우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유지로, 위의 책, 58-9쪽. 촉각은 가장 기초적인 감각이며, 시각과 가장 거리가 먼 감각이다. 일반적으로 시각은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대상 그 자체에 밀착해 있으며, 외부의 다른 감각의 영향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적어 지각은 시각 우위 하에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상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촉각 이야말로 시각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다. 근육감각과 운동감각이 포함된 체성감각으로서의 촉각은 시각적 통합의 기초가 된다. 위의 책, 285-7쪽.

30) 나희덕, 『김수영의 매체의식과 감각적 주체의 전환』,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479-480쪽.

31) 정지은, 『세계와의 경계면으로서의 촉각』,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4권1호,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2, 69-70쪽.

32) 대표적으로 서준섭은 1930년대 김광균의 시가 시각이미지와 청각이미지를 두루 구사하지만 시각적인 체험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그의 시적 특징이라고 단정한다.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연구』, 일지사, 1988, 154쪽.

33)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385쪽.

험은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재현되었다.³⁴⁾ 한국문학에서의 ‘감각의 전환’은 1930년대 모더니즘의 ‘시각적 상상력’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 나타난다. 근대문명의 시각성이 지닌 양가성-근대성,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띠고 있는 감각의 전환은, 문학에서 후각과 청각, 촉각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후각과 청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한국문학에 나타난 후각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도시화에 따른 후각의 지위변화에 대해 점검해보기로 하자. 오감 중 가장 동물적 감각으로 간주되는 후각은 ‘도시화’의 진행으로 가장 먼저 문제시 되었다. 유럽의 예를 들면 18세기 말 도시화로 인해 쓰레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전염병이 창궐하자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부패한 냄새를 비로소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냄새는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근대국가는 하수도 정비, 음식물 유통관리, 도살장이나 염색공장의 환경 규제, 거주환경 단속을 시도하게 된다.³⁵⁾ 그리고 도시의 위생혁신은 개인위생의 혁명을 동반하여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목욕문화와 청결관념을 유포시켰다. 이에 따라 냄새는 계급적 구분의 표지로까지 작용하게 되었다. 위생에 신경 쓸 수 없는 노동자층의 악취가 중산층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19세기에는 냄새가 계몽뿐 아니라 성을 구분하는 표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계몽주의의 대두로 냄새에 대한 평가절하가 시작되자 이제 후각은 본질적인 진리를 전달하거나 획득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직관과 감정, 가사와 유희 등 여성과 연관된 감각으로 간주되거나 동물적이고 미개한 감각으로 인지되었다.³⁶⁾ 무취를 위한 공격, 사적 노력들은 후각개념이 거리를 두고 대상을 관찰하며 감시하는 근대적 시각의 영향을 받고 그런 근대적 감각체계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주

34) 나희덕,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시각성-‘보는 주체’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대박사, 2006, 168-9쪽.

35) 영국의 한 의학전문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60년 동안 의학 분야의 가장 위대한 성과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네티즌들은 항생제나 마취제, 백신 대신 ‘하수도’를 꼽았다고 한다. 1868년 런던 최초로 설치된 하수도는 분노와 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혁신적인 수단이었다. 친근했던 냄새들이 악취로 정의되고 탈취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은 후각에 역사적 해석이 가해졌음을 의미한다. 최은아, 『감각의 문화사 연구-시각과 후각을 중심으로』, 『카프카연구』 17집, 2007, 147-8쪽.

36) 콩스탕스 클라센 외, 김진옥 역, 『아로마-냄새의 문화사』, 현실문화연구, 2002, 115-117쪽.

는 증거라 할 수 있다.³⁷⁾ 이와 유사한 양상이 20-30년대 한국에서도 되풀이 되면서 문학 또한 그러한 상황에 반응하게 된다.

소래섭은 김소월, 백석, 이상의 시에 나타난 후각이미지를 통해 후각에 대한 인식의 변모와 작가들의 반응을 점검하였다. 당대의 지배적인 감각과 달리 김소월의 작품에서 후각은 진실을 파악하는 수단이라는 전통적 의미를 고수하고 있으며 백석의 작품에서 냄새는 근대적 이분법들이 무화된 총체성의 세계를 매개함으로써 당대의 지배적 감각 및 문화적 현실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김소월과 백석처럼 문학을 통해 냄새를 옹호하는 것은 근대문학의 새로운 경향 중 하나이다. 탈취를 향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진행되면서 잃어버린 향기에 대한 향수가 생기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작가들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후각적 지시물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⁸⁾ 반면 이상은 주로 근대적인 냄새들을 다루는데 특히 그의 작품에서 ‘초콜릿 냄새’는 내적 진실과 유리된 채 표면을 장식하고 있는 ‘인공적 향기’이자 ‘악취’로 표현된다. 이상의 『광녀의 고백』, 『홍행물천사』에는 첨단 유행의 상징인 초콜릿으로 화장한 여성이 등장한다. 이들이 매혹된 것은 초콜릿이라는 인공적인 냄새이자 냄새에 의해 떠올려진 환상 속의 육체에 불과하다. 1930년대부터 ‘에로, 그로, 년센스’는 당대 문화의 키워드가 되었고 이상은 그런 자극으로 이루어진 당대의 문화를 ‘초콜릿 냄새’로 표현한다. 이 냄새는 당대의 유행을 대표하는 냄새로 이상에게는 근대의 냄새이자 자본주의의 냄새로 인식된다.³⁹⁾ 이상은 ‘초콜릿 냄새’를 근대의 냄새로 다루면서 그것을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표지로 활용하고 있다.

모더니티를 비판하는 ‘감수성의 형이상학’으로 최근 주목되는 것은 ‘청각’이다. 볼프강 벨쉬는 시각과 청각의 유형학적 차이를 논하면서 시각의 특징으로 지속함, 거리두기, 무감성, 개인성을, 청각의 특징으로는 사라짐,

37) 최은아, 앞의 논문, 163쪽.

38) 김소월의 『여자의 냄새』, 백석의 『여우난골죽』과 『북관』 참조, 소래섭, 『1920-30년대 문학에 나타난 후각의 의미-소월, 백석, 이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1, 한국사회사학회, 2009, 79-86쪽.

39) 소래섭, 앞의 논문 89-90쪽.

침투, 감수성, 사회성 등을 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각 우위가 관철되었던 서구철학에서도 20세기에 들어서는 시각지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듣기’를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철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으로 사상적 흐름이 변화한 것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⁴⁰⁾ 한국 문학에 나타난 청각 이미지도 시각중심의 사유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근대계몽기에 창작된 계몽가사와 신소설에서 소리의 이미지는 문명의 수사학과 계몽의 과토스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는데 여기에 동원된 근대적 매체는 기차, 시계, 전화, 유성기 등이다. 이인직의 『귀의 성』(1906)에는 종각의 종소리에 맞춰 일시에 자명종 시침을 맞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며, 계몽가사인 『경세종성』(1908)과 『기적일성』(1908)은 각각 자명종 소리와 기차소리를 통해 한국인이 중세적 어둠에서 계몽의 빛으로 달려가는 속도를 표상하였다.⁴¹⁾ 이처럼 근대계몽기에 ‘청각적 이미지’가 주는 효과는 담론이 설파된 현장성을 재현하는 매우 유효한 장치였다. 이광수의 『무정』에서도 기차소리, 전차소리, 전화소리, 쇠망치 소리 등의 기계음들은 도시의 소음이 아니라 문명의 소리로 표상되며 근대의 문물이 소음이 아닌 문명의 메타포로 기능하기 위해 이전의 삶의 습속과 생활 리듬은 근대의 속도에 포획되어야 했다. 그러나 김남천의 『공장신문』(1931), 이상의 『날개』(1936)에 등장하는 소리 이미지는 자본에 포획된 일상을 드러낸다. 김남천의 작품에서 공장의 기계음은 ‘조선 사람을 죽이는 소리’로 변하며 개인의 신체활동을 규율하는 도구로 인식된다. 이상의 작품에서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 역시 자본의 속도에 포섭된 근대인의 일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⁴²⁾

한편 1920년대 중후반 카프계열의 시인들은 충돌하는 소리들을 통해 도

40) 대표적인 철학자로 하이데거는 청각적 사유와 전통적인 이성적 사유의 대립을 가장 명확하게 정식화했다. 한편 벨쉬는 시각우위가 푸코가 설명한 ‘파놉티콘’처럼 감시(통제)사회와 일관되게 연관된다고 본다. 볼프강 벨쉬, 심해련 역, 『미학의 경계를 넘어』, 향연, 2005, 237-261면 참조.

41) 이승원, 『소리의 메타포와 근대의 일상성-근대초기~1930년대 서사양식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학회, 2004, 204-214쪽.

42) 위의 논문, 226쪽.

시를 ‘청각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근대 주체가 청각을 통해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감각과 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근대의 소리-자동차와 전차소리, 재즈음악소리, 구두소리, 공장의 기계소리, 거지들의 신음소리, 매음녀의 웃음소리 등이다. 1920년대 카프 시인들은 가두에서 목격한 자본주의 도시의 구조적 모순 특히 빈부의 문제를 소리의 충돌을 통해 시적 언어로 형상화했다.⁴³⁾ 김해강의 『직공의 노래』와 『도시의 녀름날』(1927)에는 공장의 기계소리와 거지의 신음소리가 교회의 종소리와 대비되어 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교회의 종소리는 공장의 사이렌 소리와 동일한 것으로 그려지며 두 소리는 극단적으로 충돌한다. 『도시의 겨울달』(1926)에서도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와 향락을 즐기는 소리가 충돌함으로써 대립이 극적으로 강조된다. 그는 자본주의 근대도시의 모순은 다름 아닌 계급의 모순이라는 인식을 소리의 충돌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⁴⁴⁾

1940년대 소설에서 의도적인 감각의 전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이효석의 『하얼빈』(1940)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건국된 이후 하얼빈을 방문한 화자의 시선에서 전개된다. 당시 하얼빈은 일제에 의해 개발된 계획도시로 각종 기념물과 거대한 건축물, 화려한 유흥가는 물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동양의 파리’로 불리던 국제도시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이와 같은 시각적 자극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얼빈』의 서두에는 ‘청각’ 이미지가 인상적으로 제시되는데 하얼빈의 ‘음향’으로 표현되는 청각이미지는 작품의 화자에게 하얼빈의 도시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호텔이 키타이스카야의 중심지에 있자 방이 행길편인 까닭에 창 기슭에 의자를 가져가면 바로 눈아래에 거리가 내려다보인다. 삼층 위의 창으로는 사람도 자그마하게 보이고 수레도 단정하게 보이며 모든 풍물이 가뜩나 그 자신 잘 정돈되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쓸새없는 요란한 음향은 어디선지도 없이 한결같이 솟으면서 영원의 연속같이 하로하로를 지배하고 있다. 일흔 새벽 침

43) 오세인, 『근대 도시의 청각적 재구성-1920년대 카프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8호, 한국시학회, 2010, 296쪽.

44) 위의 논문, 319쪽.

대속으로 들려오는 우유를 나는 박휘소리에서 시작되는 음향이 점점 우렁차게 커지면서 밤스중 삼경을 넘어 다시 일흔새벽으로 나아질 때까지 파도소리 같이 연속되는 것이다. 인간생활에는 반드시 음향이 필요한 모양이다. (중략) 조각들을 깔아 놓은 두툼두툼한 길바닥을 지나는 마차와 자동차와 발소리의 뚜벅뚜벅 거칠은 속에 신선한 기운이 넘쳐 들리고 여자들의 화장한 용모가 선명하게 눈을 끄는 것도 이런 때이다.⁴⁵⁾

이효석의 『하얼빈』에는 낡은 것의 가치를 옹호하는 고집스러운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는 하얼빈의 도시경관에서 오로지 백계 러시아인들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특정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키타이스카야거리가 속한 부두구의 맞은편에는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부가전이 있었지만 그 공간은 소설 『하얼빈』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화자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보기’보다는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음향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는데, 그가 하얼빈의 도시 경관에서 ‘청각’이미지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제국주의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재편된 새로운 도시경관에서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는 행위이다. 이처럼 『하얼빈』에서 드러나는 ‘청각적 전환’은 일제 말 현실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⁶⁾

후각 및 청각을 통해 시각 중심의 사유를 비판하는 현대문학의 작품과 달리 다산 정약용 시에서는 오히려 청각적 상상력이 억압되고 시각적 상상력이 강조되었다는 이강옥의 연구도 문학작품에 나타난 감각적 상상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강옥은 이학규와 정약용의 시를 비교분석하는 자리에서 정약용의 시에는 소리 모티프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부정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청각적 상상력이 억압되고 시각적 상상력이 확장된 이유로 이강옥은 정약용의 ‘사실주의적 정신’과 비판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비판적 거리를 들고 있다.⁴⁷⁾ 이는 시

45) 이효석, 『哈爾濱』, 『文章』. 1940.10, 2쪽.

46) 이양숙, 『일제 말 이효석과 유진오의 도시 읽기-『하얼빈』과 『신경』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3, 한국현대문학회, 2014.

47) 비판은 시적 자아가 갖춘 지식과 이념에 바탕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함축되어 있는 이치를

각이 가장 고귀한 감각으로 강조되었던 근대 계몽주의적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⁴⁸⁾ 감각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을 모두 활용하여 근대적 정서를 표현한 백석 시 연구, 1950년대 시에 나타난 후각 이미지 연구, 김수영 후기시의 청각지향에 대한 연구⁴⁹⁾ 등은 시각 이외의 감각을 통해 미적 모더니티를 구현하고 있는 문학에 대한 풍성한 연구 사례라 할 수 있다.⁵⁰⁾ 본고에서는 근대문학에 한정하여 감각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시각중심주의를 벗어나 다양한 감각을 통해 도시적 삶을 조명한 작품과 그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였다. 시각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시각예술로서의 미술’을 배격하고 후각, 미각, 촉각, 청각에 기초한 미술운동을 벌인 ‘플럭서스(Fluxus)’미술운동은 탈육체화된 시각을 다시 몸으로 되돌리고 다른 감각들과 함께 아우르는 통합된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⁵¹⁾ 이처럼 감각적 전환은 최근 문화, 예술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감각의

살피는데 적절하지만 그 ‘거리’는 시적 자아가 대상과 공감하거나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정약용 시에서 관찰, 관조, 성찰, 비판은 두드러지나, 대상과의 정서적 공감이나 합일은 결여되었다. 반면 청각적 상상력이 다른 것을 압도하는 이학규 시는 여성취향을 보인다. 그의 시에서 시적자아는 사대부의 자리에 있다가 마침내 민중과 여인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는데 그 결과 간절한 연민과 공감이 창출되었다. 이강욱, 『다산 정약용 시의 시각적 상상력과 청각적 상상력-이학규 시의 경우와 대비하여』,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48) 인식주체를 강조하는 계몽주의적 사유에서는 관찰을 인식주체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칸트는 ‘시각이 가장 고귀한 감각’이며 촉각은 ‘가장 제한된 지각조건’이라며 관찰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처럼 몸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직자아는 시각의 권력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계몽주의에서 모든 지식은 ‘계산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에 따라 판단되고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김성현, 『독일 낭만주의의 ‘촉각적 사유’와 몸 담론』, 『인문과학연구』 15, 전북대인문학연구소, 2011, 98쪽.

49) 전봉관, 『백석 시의 모더니티』,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2005, 정진경, 『1950년대 시에 나타난 후각 이미지 연구』, 『한국문학논총』 65, 한국문화회, 2013, 나희덕, 앞의 논문

50) 시각 이외의 감각에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미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이 되기도 했다. 예컨대 주류 사회가 특정 냄새를 억압할 때 그 냄새들에 문화적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제약에 대한 반항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앞의 책, 122쪽.

51) 이지은, 『플럭서스의 탈시각중심주의』, 『미술이론과현장』 6, 한국미술이론학회, 2008, 161쪽.

문제는 필연적으로 감각의 수용체인 ‘몸’에 대한 문제, 촉각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나⁵²⁾ 이는 그를 달리해야할 만큼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4. 도시문학 연구의 방향

도시화의 진전으로 더 이상 시골과 도시라는 이분법이 적용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한 지금 현대도시와 그 고유한 성격으로서의 도시성(urbanism)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도시인문학을 낳게 되었다. 도시인문학으로서의 도시문학연구는 예술적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도시성을 탐구함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도시적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새로운 감각의 혁명이며 현실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도시문학의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공간적, 문화적, 감각적 전환의 문제가 구체화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 거칠게나마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환’을 대체가 아니라 외연의 확대와 내포의 심화를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⁵³⁾ 자칫 상반될 수 있는 도시문학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문학연구의 ‘문화적 전환’에 대해 김백영은 식민지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방식의 접근과, 근대적 보편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양립하는 상태라고 비판적으로 진단한 바 있다. 기존 연구가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산적 실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후자는 주로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재생산적 실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외형상 근대 밑에 존재하는 식민지적 폭압성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면 후자는 외관상 여전

52) 천정환의 지적처럼 감각과 몸이 다른 것이라 해도, 감각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몸에 대한 태도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천정환, 『한국 소설에서의 감각의 문제』,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201쪽. 이밖에 안미영, 『근대소설연구에서 몸 담론의 전개과정과 쟁점』,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회, 김용희, 『한국현대문학에서 몸 담론과 몸 연구의 새로운 가설에 대하여』, 『한국문화연구』, 2004, 등의 논문을 참고할 것.

53) 최용찬, 『도시의 사회사에서 도시의 문화사로?』, 『공간 속의 시간』, 심산, 2007, 177쪽.

히 전근대성이 농후한 도시환경 속에서도 매체의 각광을 받으며 등장한 근대적 감수성과 주제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⁴⁾ 한국문학연구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누차 논의된 바 있다. 문화론적 문학연구가 ‘경계’를 무화시키지만, 경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경계가 확장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경계자체를 대상화해 탐문할 필요조차 사라졌다는 비판이나⁵⁵⁾, 기존의 문학연구에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문학이 분리 연구됨으로써 양자의 상호텍스트성이 간과되었다는 점,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 모두 전체 문학사의 관련성 속에서 연구되지 않았으며 특히 경향과 문학의 경우 외국 비평사의 맥락에 귀착된 연구가 많았다는 반성 등이 그것이다.⁵⁶⁾ 이처럼 한국문학에서의 공간적 문화적 전환은 기존 문학연구의 시대적 의의에 대한 인정과 발전적 비판에 근거하고 있는바 공간적 전환이 이룩한 성과와 기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도시문학연구의 수준은 한층 깊어질 것이다.

둘째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이다. 도시 지식은 어떤 지식보다도 학제성과 횡단성이 중요한 분야이다. 도시는 복잡한 대상으로 하나의 공통이론으로 통합되지 않은 다중적인 학문해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⁵⁷⁾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제 영역에서 이루어진 ‘공간적 전환’은 도시연구에서 학제 간 문제의식의 공유가 긴요함을 보여준다. 사회학, 지리학, 건축학, 지역학, 철학, 역사학, 심리학, 기호학 등 도시문제를 다루는 학문과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도시문학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교문화적 연구이다. 글로벌화는 초국가적 범위에서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한국의 도시문학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도시문학 나아가 세계의 도시문학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각국의 도시문학에 나타나는 보편성과 지역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가 글로벌-국가-로컬 단위의 새로운 관계 맺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세계 도

54) ‘양립’이란 이들의 대립구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생산적 논쟁점을 형성하고 있다기보다, 서로 논점을 비껴가는 교집 없는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백영, 『지배와 공간』, 문학과지성, 2009, 45쪽.

55) 차혜영, 앞의 논문, 89-90쪽.

56) 이에 대한 연구목록은 오세인의 앞의 논문, 296쪽을 참조할 것.

57) 김성도, 앞의 책, 30쪽.

시문학에 나타난 지역성과 보편성을 탐구하는 일은 탈근대적인 도시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도시인문학으로서의 도시문학의 성격을 밝히고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도시문학의 한 양상을 점검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은 주로 1920-40년대의 한국문학작품들이다. 이 시기는 식민지적 근대체험의 특수성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시기이며, 앞서 언급하였던 공간적, 문화적 전환의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주요한 시기로 한국문학연구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밝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재선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문학에서 도시의 제시가 본격화된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던 1970년대이다.⁵⁸⁾ 본고에서 1970년대 이후 전개된 현대문학의 제 양상까지 포괄하지 못한 것은 연구자의 능력부족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도시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후 지속적인 과제로 삼아 진행하고자 한다.

58) 이재선, 앞의 책, 248쪽.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백영, 『지배와 공간』, 문학과 지성, 2009.
- 김성도, 『도시인간학』, 안그라픽스, 2014.
-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연구』, 일지사, 1988.
- 이광호, 『도시인의 탄생』, 서강대출판부, 2010.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 최종렬, 『사회학의 문화적 전환』, 살림, 2009.
- 나카무라 유지로, 고동호, 양일모 역, 『공통감각론』, 민음사, 2003.
- 마이클 크랭, 나이젤 스토프트 편, 최병두 역,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 볼프강 벨쉬, 심혜련 역, 『미학의 경계를 넘어』, 향연, 2005.
- 콩스탕스 클라센 외, 김진옥 역, 『아로마-냄새의 문화사』, 현실문화연구 2002.
- 피터 손더스, 김찬호 외 역, 『도시와 사회이론』, 한울, 1998.

2. 논문

- 권보드레, 「‘풍속사’와 문학사의 질서」,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25-49면.
- 김길웅, 「시간과 멜랑콜리」, 『독일언어문학』 36, 한국독일언어학회, 2007, 247-265면.
- 김명인, 「근대소설과 도시성의 문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6, 민족문학사학회, 2000, 189-226면.
- 김명인, 「근대도시의 바깥을 사유한다는 것」,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09, 209-228면.
- 김문조, 「감각과 사회: 시각과 촉각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18, 한국영상문화학회, 2011, 7-32면.
- 김성기, 「우리 시대 ‘문화적 전환’의 안과 밖」, 『역사와 문화』 10, 2005, 120-157면.
- 김성현, 「독일 낭만주의의 ‘촉각적 사유’와 몸담론」, 『인문과학연구』 15, 전북대인문과학연구소, 2011, 97-111면.
- 김용희, 「한국현대문학에서 몸 담론과 몸 연구의 새로운 가설에 대하여」, 『한국문화연구』, 2004, 135-161면.

- 김진영 외,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공간 논의에 대한 재고찰』, 『지리교육논집』 54, 서울대지리교육과, 2010, 1-15면.
- 김춘식, 『식민지 도시 '경성'과 '모던 서울'의 표상』, 『한국문학연구』 38,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10, 43-66면.
- 김학희, 『현대 미술에서 지리적 상상력의 중요성』,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대한지리학회, 2008, 273-278면.
- 나희덕, 『김수영의 매체의식과 감각적 주체의 전환』,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467-496면.
- 소래섭, 『1920-30년대 문학에 나타난 후각의 의미』, 『사회와 역사』 81, 한국사회사학회, 2009, 69-93면.
- 안미영, 『근대소설연구에서 몸 담론의 전개과정과 쟁점』,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회, 127-163면.
- 오세인, 『근대 도시의 청각적 재구성』, 『한국 시학연구』 28, 한국시학회, 2010, 295-326면.
- 오형엽, 『미적근대성, 이미지즘, 감각의 사용법』, 『과파 21』 6호, 2004, 36-51면.
- 이강욱, 『다산 정약용 시의 시각적 상상력과 청각적 상상력』, 『한문학회』 18, 우리한문학회, 2008, 1017-1052면.
- 이기형, 『문화연구와 공간』, 『언론과 사회』, 16권 3호, 2008, 2-49면.
- 이동하, 『도시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소설연구의 과제』, 『현대소설연구』 52, 현대소설학회, 2013, 9-43면.
- 이상봉,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와 로컬-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30면.
- 이승원, 『소리의 메타포와 근대의 일상성』,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04, 197-228면.
- 이양숙,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1941년의 경성과 지식인』, 『현대소설연구』 54, 현대소설학회, 2013, 393-428면.
- 이양숙, 『일제 말 이효석과 유진오의 도시읽기-『하얼빈』과 『신경』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3, 한국현대문학회, 2014, 371-399면.
- 이지은, 『플럭서스의 탈시각중심주의』, 『미술이론과 현장』 6, 한국미술이론학회, 2008, 146-163면.
- 임상우, 『역사학에서의 문화적 전환』, 『서강인문논총』 14,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2001, 205-227면.
- 전봉관, 『1930년대 한국 도시적 서정시 연구』, 서울대 박사, 2003.
- 전봉관, 『백석 시의 모더니티』,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2005, 313-336면.
- 정인숙, 『국문학 분야 도시연구의 동향과 전망』, 『도시인문학연구』 3권1호, 서울시

- 립대도시인문학연구소, 2011, 287-310면.
- 정지은, 「세계와의 경계면으로서의 촉각」,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4권 1호, 한국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10, 67-86면.
- 정진경, 「1950년대 시에 나타난 후각이미지 연구」, 『한국문학논총』 65, 한국문학
회, 2013, 279-312면.
- 차혜영, 「자료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67-86면
- 천정환, 「한국 소설에서의 감각의 문제」,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197-222면.
- 천정환, 「새로운 문학연구와 글쓰기를 위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
사학회, 2004, 376-410면.
- 최은아, 「감각의 문화사연구」, 『카프카연구』 19권 1호, 한국카프카학회, 2008,
159-187면.
- 한지은, 「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와 경관의 텍스트성」, 『안과 밖』 34, 영미문학연구
회, 2013, 126-146면.

Urbanism in Korean Literature

Lee, Yang-sook

Urban-Humanities have focused on the city-life as the rapid progress of urbanization. In the field of urban literature the literary aspects of urbanism has been investigated. In literature urbanism generally has been understood in two ways. First, urbanism is recognized as everyday urban phenomenon or as modernity in a general sense. In this way, urban experiences itself and literary aspects produced from impact of it are emphasized. Second, urbanism refers to the urban characteristics as a form of capitalism that is spatially embodied, in a more restricted sense. In this sense, urban studies is a work that explores moving mechanisms of capitalism. Therefore, the study of urban literature researches aesthetic modernity which was born between the modern subject and the capitalistic, cultural urbanism. Urban humanities shares a critical mind referred to spacial, cultural and sensual turn with various fields of humanities. Among them, the most noteworthy “turn” in the field of literature is the sensual turn. In this paper, auditory and olfactory turn shown in modern Korean literature was reviewed and analyzed. Study of urban literature will be able to get help from study of literary modernity, cultural study in literature, landscape study of cultural geography, study of Seoul literature, locality study and so on. The same issue that the crises of humanities must be overcome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se studies. These methodologies have plenty of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urban literature, none the less it will be undesirable to understand ‘turn’ as ‘alternative.’ If the ‘turn’ could be accepted as a expanding denotation and as a deeping the critical mind, the risks of conflicting with existing research will be remov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will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urbanization and standardization occurred in transnational scale. And it will also be helpful for building a post-modern urban culture and literature.

Keywords: urbanism, urban humanities, urban literature, spacial turn, cultural turn, sensual turn

접수일자: 2014. 9. 30.

심사기간: 2014. 10. 1.~2014. 11. 10.

게재결정: 2014. 11. 10.